

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설기술인의 역할

김 수 삼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우리 협회 토목자문위원

다음은 지난 2월 10일 열린 「제1회 건설기술인 세미나」에서 중앙대 김수삼 교수(본협회 자문위원)가 주제발표한 내용으로 이에 수록한다.

1. 한국건설산업의 문제점

(1) 정부쪽의 문제

〈목 차〉

1. 한국건설산업의 문제점
 - (1) 정부쪽의 문제
 - (2) 건설산업계의 문제
2. 환경변화와 당면과제
 - (1) 건설산업의 구조변화
 - (2) 건설관련제도의 변화
3. 21세기 건설업의 발전방향
 - 3.1 기본구상
 - 3.2 대응방안
4. 건설인력의 양성
 - 4.1 기본구상

- 정부의 막강한 힘이 건설업의 성장을 저해했다.
- 공무원의 경직성이 건설산업의 시행 절차를 오도했다.
- 일본제도의 모방이 한국형 정책 마련에 지장을 초래했다.
- 정부의 감사제도는 계약 당사자를 무시하는 관행을 유발시켰다.
- 기술 경시풍조가 안이한 수주환경을 조성했다.
- 정부의 예산제도가 건설 거래 질서를 후퇴시키는 역기능 중 하나였다.
- 건설제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공무원이 희소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았다.

세미나 2

(2) 건설산업계의 문제

- 건설업은 우연한 기회에 성장했다.
- 모순된 수주관행을 스스로 선택했다.
- 두발자전거 이론이 건설업을 해치고 있다.
- 약육강식의 지배논리만 앞세운 기업윤리가 건설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 인재를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 국민을 외면하고 빨주처만 의식한 공사관리 관행이 건설업을 퇴보시켰다.
- 전문기술을 외면한 공사수주와 집행이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있다.

2. 환경변화와 당면과제

(1) 건설산업의 구조 변화¹⁾

- 시장규모의 변화
 - 2005년에 국내시장은 92년대비 약 2.2배 커질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업체의 참여 평균규모가 확대될 전망임.
 - 그러나, 면허 개방으로 기업별 수주규모는 경영전략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나 2000년대에도 계속 면허 개방이 지속되어 2010년경에는 포화상태에 도달할 경우 안정적인 시장운영도 예상할 수 있음.
- 수요구조의 변화
 - 건설수요의 고급화
 - 국내 건설수요의 증가 추세 둔화
 - 소비자 의식의 변화 : 가격, 품질에 대한 인식 고조, 권리의식 고양
- 공급구조의 변화
 - 면허 빨주주기 단축으로 건설업체수 증가 (신규면허업체와 새로운 시장진입수요의 침

여 문제)

- 수주 중심으로 SOC 등 개발형 사업의 확대
- 시공보다는 SOFT 중심의 서비스 항목 개발의 활성화
- 건설산업의 국제화
 - 국내시장 개방과 국제화 추진
 -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

(2) 건설관련 제도의 변화

1) 건설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 중진국 수준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적정한 국토개조계획의 도입
- 부실공사 방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신뢰성 제고
- 시장개방환경을 극복하는 제도 도출
- 소비자 보호와 환경보호 등 『신건설산업 운영 정책』과 『한국형 건설경영전략』 마련을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의 수립과 운영
-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건설산업의 육성방안
- 국제적인 수준의 건설기술 개발 촉진정책

2) 개편요소

- 시장 진출입제도 조정
 - 면허제도 : 시장 진출입의 완화와 수시 발급
 - 입찰제도 : PQ 및 입찰방법의 다양화(종합 낙찰제 등)
- 생산성 향상 방안
 - 조사·설계 용역의 내실화
 - 철저한 현장 감독·감리 업무의 정착화
 - 하도급제도의 보완
 - 견실시공 풍토의 조성
- 국내시장의 국제화 유도와 해외시장 진출
 - 건설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정비
 - 국내시장 운영 전략의 확립
 - 빨주와 심사 및 협상능력의 제고방안

1) 김홍수 : "건설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한국건설정책연구원, '94. 9. pp. 1~3 참조

- 건설사업 추진 절차의 요식화
- 분쟁조정기구의 운영
- 국내·외 금융·보험제도의 정비
-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강구

3. 21세기 건설업의 발전방향

3. 1 기본구상

- 기본능력의 구축
- 적정기능의 분담
- 지역성 극복
- 기술영역의 정비
- 적정 관리조직의 운영
- 신수요 창출

(1) 기본능력 구축

- 기존에 건설산업이 갖는 부정적인 인상을 제거하고 새로운상을 정립하게 됨.
- 건설업의 기본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3가지 방안에 대해 혁신적인 변환이 시도되어야 함.
 - 신뢰성 제고방안 : 사회인식 고양(시설과 서비스질 향상)
 - 생산성 증진방안 : 수익성 제고(적정이윤 통한 사회기여)
 - 경쟁성 확보방안 : 효과적인 시장 확보(적정한 원가 반영과 공정한 경쟁)

(2) 적정기능의 분담

- 미래에는 현재의 건설시장이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체제로 되어 있는 2중 구조가 [대기업-중·소기업-전문건설업-인력하도급] 등 다층구조로 기능이 다음과 같이 분담
 - 대기업 : 종합화, SOFT화
(기획, 조사, 설계, PM, CM, R&D, 자

금 등등)

- 중·소기업 : 전문화, HARD 전문화
(주택, 교량, 터널, 도로, 항만 등등)
- 전문건설업 : 전문기능화, HARD 분야별 기능화
(콘크리트, 방수, 미장 등등)
- 인력하도급 : Group화
(기능화, 상용화 유도)

(3) 지역성 극복

-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라 지역 연고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 지역이 협소하고 문화·역사적 배경이 동일하여 궁극적으로 단일시장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경영혁신이 요구되며 특히 외국의 설계, 감리기술 도입에 따른 시공분야의 체질 변화가 기본적으로 강요될 것임.
- 해외진출전략에는
 - 세계화(WORLDwide) : 중립적 개념으로 사용
 - 국제화(International) : 본국 이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
 - 다국적화(Multilocal) : 세계시장을 상대로 서로 다른 형태의 세계화 추진
 - 지구화(Globalization) : 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기업목표에 알맞는 전략의 선택이 요구됨.
- Global 전략이란 국가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들의 단순한 집합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사업의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개념임.²⁾
 - 산업 글로벌화 촉진요인에는 시장요인, 비용요인, 정부요인, 경쟁요인 등 4가지로 분류 가능하며,

2) Yip, George S. "국제화시대의 세계적 경영전략", 김영사, '94. 1장 참조

세미나 2

– 시장요인의 변화에는

- 국가당 1인당 소득격차가 좁혀지고,
- 생활양식과 기호가 국가간에 수렴되고,
- 국제여행의 증가로 글로벌 소비자가 증가
- 글로벌 또는 지역별 유통망 구축과 광고 개발 등

– 비용요인의 변화에는

- 기술혁신의 가속
- 운송수단 개선
- 제품수명에 비해 급증하는 제품개발 비용
- 저임과 생산능력을 보유한 신흥공업국의 출현
-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 정부요인의 변화

- WTO 등 관세·무역환경의 변화
- 경제블럭의 출현
- 민영화 추진에 따른 정부역할 감소
- 동구권, 중국 등의 자본주의화

– 경쟁요인의 변화

- 세계무역량의 지속적 증가
- 해외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의 증가
- 특정산업에서 국가간 상호의존하는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차원에서 분업 및 생산기지 결정
- 국가간에 경쟁시장이 상호교차함에 따른 글로벌화 진척 등

– 기타: 정보와 통신혁명, 금융시장 및 국제 여행 서비스 등의 변화

(4) 기술영역의 정비와 협업체계 구축

- SOFT 지향 기술
- HARD 지향 기술
- SOFT와 HARD 동시 지향 기술
- 수평 및 수직협업, 분담체계 구축

(5) 적정 관리조직의 운영

- 21세기에 들어서서 조직변화를 강요하는 요인들은 Galbraith 등에 의하면 전략적인 이니셔티브, 비용, 속도, 품질, 기술, 구매자의 힘, 기량부족, 무역 불균형, 정보기술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음.³⁾
- 따라서 효과적으로 이들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 전문경영인
 - 소장 요원
 - 분야별 전문가 요원(각 기술분야, 마케팅, 계약 등)
 - 종업원 참여기능 등을 체계있게 양성하고 도입, 보완해야 한다.

(6) 신수요 창출

- 시설이 다양화 및 고도화되고
- 고령사회 등에 적응하고
- 고도 정보화사회에 진입하므로
- 복합형, 집합형 시설들이 늘어나고
- 신공간(해상, 지중, 공중 등)과 기존공간의 개조, 개편이 활발히 추진될 것임.

3.2 대응방안

앞에서 제시한 기본구상안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1) 자기개혁과 기업윤리의 정립

- 건설업계 내부에 적정한 생산성을 확인하는 과학적인 분석노력이 추진되어야 하며,
- 품질의 기준은 『최종시설 이용자』의 평가를 전제로 한 관리목표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 요구됨.

3) Galbraith, Jay R., Lawler, E. E., "Organizing for future", Jossey-Bass Inc. CA. USA., 1993. 서론 참조

- 전문기술인의 내부토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기술적인 의사결정의 비전문성을 배제하는 노력이 필요함.
- 기업의 신뢰성과 생산성이 경쟁력으로 인정되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산업구조의 개편

- 대·중·소 기업간에 수직·수평적인 협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공동도급제도와 하도급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함.
- 신규업체는 점진적인 시장진입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자격심사제도를 보완하여 불필요한 저가수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입찰제도를 통해 대·중·소 기업의 경영전략이 노출되도록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시장개방시 협상력을 배양하기 위해 Nego 형식에 의한 입찰제도도 선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설계, 시공, 감리 등의 기능을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면허요건을 최소화하고 종합화 기능 등을 허용하여 형식적인 제도에 의한, 강제적인 자격에 의한 품질확보 방안보다 최종시설물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의 발휘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나타나도록 「선자격」제도보다 「후평가」제도에 의한 시장관리체제의 도입이 요구됨.
- 소규모공사에서나 소량의 유지보수공사 등에서 사전자격심사제도의 도입이나 최저가 낙찰제의 사용은 그 효용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국내시장 운영을 『개방시장영역』과 『보호육성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원적인 시장운영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책임시공제도의 확립

- 최근에 감리제도를 통한 현장품질 재고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감리기능의 제한성 때문에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므로 도급자 책임시공주의가 공개적으로 정립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는 시공자에게 설계에 대한 이의신청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 시공자가 설계 및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클레임을 요구할 수 있는 쌍무조항을 현실적으로 복원시켜야 함.
- 『하자보증』과 『유지보수』는 구분되어야 하며 시설물 준공 후 시설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분담을 위한 해석이 공개적으로 예시되어야 함.

(4) 건설인력의 양성

- 건설시장이 보다 전문화되고 국제화됨에 따라 양질의 전문인력의 양성, 보급이 필요하나 기업간에 기술격차가 크고 관리목표가 상이하여,
- 기업 자체교육만으로는 적정한 기술력과 합리적인 관리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함.
-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철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건설업계 스스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현재 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도 실무 또는 현장 중심교육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하며, 교육의 질 또한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함.
- 향후 국제화에 대비하여 기술자뿐만 아니라 계약, 자재, 인력, 중기관리, 연구개발관리 등 전문야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설이 요구됨.
- 대학 등 교육기관과 산·학 협동에 의한 산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제도

세미나 2

적으로 강구해야 함.

(5) 신용평가제도에 의한 건설업체 진흥방안 도입

- 현행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본정책은 잘못에 대해 처벌을 앞세우는 Negative system을 운영하고 있는 바 건설업체의 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인정하는 Positive system의 도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하여 「발주자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기업의 공사실적이 Data Base로 축적되어 PQ 심사 등에 이용되어야 하며,
- 거래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평가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종합능력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6) 현실적이고 공생하는 하도급제도의 도입

- 하도급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재하도급 이하의 중층하도급을 양성화시켜 제도권에 흡수시켜야 한다.
- 하도급 생산성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현장품질 재고와 생산성 재고를 통한 이익률 증대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하도급 육성 전략은 정부는 「거시적인 환경조성」을 담당하고 원도급자는 「미시적인 관리전략」을 마련토록 유도하여 원·하도급 모두를 관리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일용근로자들도 Data Base로 그 실적을 관리하여 「건설기능인력 등록증」을 발급함으로써 임금협상 또는 계약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상용근로자에 준하는 자료관리가 실시되어 신용을 창출하고 기술을 전문화시키는 밑바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7) Global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후진국에 대한 종합적인 협업방안을 입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 기술수준을 「전략적 우위기술」, 「경쟁수준 기술」, 「보완이 요구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기술」, 「미보유 기술」 등으로 다양화시켜 국제적인 분업과 협력체계 구축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 중·후진국에 대한 과감한 기초기술 이전을 통한 고유한 한국형 협력방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국제간에 건설시공기술뿐 아니라 설계, 자재, 장비, 계측, 시험, 연구·개발,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국제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동남아 등에 「국제인력양성센터」 같은 조직을 만들어 현지인을 도우면서 제3국 인력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만함.

4. 건설인력의 양성

4. 1 기본구상

- 전문기술의 함양
- 전문역할의 확보
-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
- 적정한 경영관리조직의 개발
- 인력 생산성 향상 방안 강구
-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

(1) 전문기술의 함양

- 전문기술에 대한 기초 및 질적인 수준의 제고
- 「이론」과 「실제」의 조화로운 실용기술 확보
-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현실적인 기술 개발
- 분야별 전문화의 추구

- 전문기술 수준의 국제화 유도

(2) 전문역할의 확보

- 기술인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의사결정기구의 도입
- 전문 분야를 고수할 수 있는 여건의 확보
- 분야별 전문가의 역할 정립
- 전문기술의 종합화를 위한 관리기술의 도출
- 「기술」과 「관리」 분야의 공존을 위한 상호 역할 분담 방안의 강구

(3)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

- 직업관료
- 전문 설계인
- 고도화된 감리인
- 유능한 시공인
- 성실한 기능인

(4) 적정한 경영관리조직의 도입

- 「협업」과 「분담」 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조직의 구상
- 효율적인 인력 평가방안의 개발
- 대·중·소기업 특성과 설계, 감리, 시공, 하도급 등 기능에 따른 적정한 인력관리방안의 마련
- 건설산업에 적합한 「건설관리조직」과 한국건설산업에 알맞은 「한국형 경영관리조직」의 합리적인 도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
- 「Line」과 「Staff」 기능의 적정한 수행

(5) 인력 생산성 향상 방안 강구

- 단위 인력당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모형 도출

(시간, 비용, 효율 등)

- 단위 인력당 생산성지수 도입
- 기업간, 기능간, 국가간의 생산성 비교
-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인력관리 장려방안 도입
- 현장 자동화에 대한 장기전망과 인력대체방안의 영향 검토

(6)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

- 국내·외 시장의 차별성 봉괴에 따른 국내 인력의 국제화 유도
- 제3국 인력의 고용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창설
- 국제적인 공동 진출을 위한 대학 등 교육기관의 상호 교류 추진
- 국제적인 학술행사의 공동 운영과 전문교육의 실행
- 지역별, 분야별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동아시아, 아시아, 아·태지역, OECD 등)
- 일본의 제안
 - Asian Model Code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 Asian Society of Construction Engineers
 - Asian Center for Construction Research and Technology
 - Asian Academic and Technical Center
 - Planning of Asian Infrastructure Projects